

주저 말고 내몸체 항아리 속에서 마음이 벗어나야

29면에서 계속

을 배척한다면, 남을 욕을 한다면, 바로 내가 욕을 먹어지고 내가 몸이 망가지고, 배척하는 것만큼 자기가 망가져요. 또 모든 것이 욕심을 부려서 '내가 배척하지 않았으니깐 전부 내 거다.' 이렇게도 생각하지 말라 이겁니다. 사람이 모두가 내 거기 때문에 놔 놓고 써라 이겁니다. 놔 놓고, 그러면 무겁지도 않고 가벼지도 않고, 가벼운 것도 없고 무거운 것도 없고 그냥 여여하게 내가 씹쓸이에 의해서 내가 만 원 쓰려면 만 원 쓰고, 천 원 쓸려면 천 원 쓰고, 몇천 원 쓰려면 몇천 원 쓰고, 이렇게 다양하게 써라 이겁니다. 그 주인공 안에 다 들어 있으니까요.

무심의 상태란 어떤 것인지요

문) 가끔 무심도인이란 말을 쓰기도 하는데 도를 공부함에 있어 무심의 상태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 무심이란 건 지금 여러분도 전부 무심입니다. 왜냐? 말하는 것도 고정된 게 없지, 보는 것도 고정된 게 없지, 만남도 고정됨이 없지, 먹는 것도 고정된 게 없지, 자는 것도 고정된 게 없지, 그냥 움쭉거리지 않고 자는 게 없지, 가고 오는 것도 고정된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대로 마음 쓰고 그대로 무심으로 그냥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오고 가고, 그냥 보고 듣고 이렇게 그냥 찰나찰나 넘어갑니다. 찰나찰나 그냥 돌아오. 그게 무심입니다. 그대로 무심이요.

그런데 왜 괜히 불되고 무심이나 유심이나 하십니까. 유심도 무심도 둘이 아닙니다. 알고 보게 되면은 우리가 힘이 없이 그냥 행을 하는 거고, 말하는 것도 힘이 없이 말을 하고 듣는 것도 힘이 없이 하고, 우리가 그대로 여여하게 그냥 사는 건데, 전부 모르고들 마음으로 불되고 늘어지고 온통 아담들이죠. 무심이 따로 없어요. 그냥 우리가 한 발짝 떼어 놓고 그걸 생각을 안 하면 무심입니다. 한 발짝 떼어 놓고 뒷발자국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앞으로만 가면은, 발자취를 생각 안 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 발자국 떼어 놓고선 그 뒤 발자취가 금이라고 한다면 돌아다보게 되거든요. '아이고, 저놈의 금을 내가 밟고선 저렇게 저거 했으니까 고 금을 마저 내가 이거를 해야겠다.' 하면은 한 발짝도 걸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대로 무심코 그냥 걸어 여기까지 올라왔지 않습니까. 요걸로만 비유해 본다면, 저기서 올라올 때 그냥 무심코 걸어서 올라왔지, 내 뒤 발자취가 어떤가, 요렇게 떼어 놔나 저렇게 떼어 놔나 하고 걸어왔습니까? 또 보는 것도 무심히 보지 내가 저거를, 저게 어떤가 그러고는 미리 생각을 하고 봤느냐고요? 듣는 것도 그래요. 미리 생각하고 듣는 게 없습니까?

다. 그냥 듣고 나서 인제 그 판단이 되죠. 그러니까 무심입니다. 그냥 무심. 왜 그냥 여여한 거를 모릅니까? 아이, 그냥 고정됨이 없다고 반야심경에다가 그렇게 해 놔지 않습니까. '고정된 게 하나도 없어서 그대로 여여하나라.' 하고 말합니다. '색도 공이요 공이 색이나라. 그대로 고정됨이 없으니 공과 색이 둘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무심이라는 여여한 도리만 알면 그냥 무심이요 그냥 무심도예요.

내 의식에 속지 않고 지혜롭게...

문) 공부를 해 나가다 보니 마음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음을 느낍니다만 어떨 때는 내 스스로 인정하기 싫은 내 모습에 속아 넘어가기도 합니다. 내 의식에 속지 않고 지혜롭게 살고 싶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 우리가 한 발 떼어 놓으면 한 발 없애지

저 천둥 번개를 쳤다고 하는데 아니라고 그러면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자유스럽게 발판을 세우고 자유롭게 뭘 수가 있는 세기일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의 여러분이, 이런 게 있죠. 가난해도 행복하기만 하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돈이 많아도 행복하지 못하고 항상 쪼들리면서 살다가 그냥 쓰러지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마음이 부자라면 다 부자예요. 그렇듯이 하여튼 여러분은 주저하지 말고 이 항아리 속에서, 내 몸체 항아리 속에서 마음이 벗어나야 합니다. 벗어나서 이 세상을 이렇게 '이러해도 뭘 수 있을까?' 이력하고 한번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할 수 없을까? 하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거든지 송구스럽고 괴롭게 생각하지 마시고 공부하는 데 어떠한 게 닥쳐 오더라도 '너만이 해결할 수 있어. 이끌어들 수 있어. 너만이 이것을 꼭 해야 돼. 난 손만 빌려

이실 수 없으면 죽고, 또 들어주고 내실 수 없으면 죽잖아요. 그런데 그 내쉬고 들어주고 하기 이전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목숨은 내쉬고 들어주는 그 가운데 있는 것이 목숨이예요. 우리가 그렇게 들어주고 내쉬는 것 지켜보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들어갔다 나갔다 해요. 그렇게 자동적으로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미심쩍어서 지키고 있어요? 그냥 놓으세요.

이 몸은 집합소예요. 생명체의 집합소. 그리고 심부름꾼이자 관리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가 아니에요. 더불어 나지. 그러니까 몸속에 있는 생명체들과 같이 더불어 하나예요. 개개인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고, 따로따로 있지도 않고 한데 있지도 않고, 그러니까 둘이 아니게 한마음으로 돌아가니까 내가 밥 한 그릇을 먹어도 내가 혼자 먹는 게 아니고, 둘이 아니게 한마음으로 한데 뭉쳐서 먹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잘못도 네 잘못도 하나도 없

게 바빠야 하고 그렇게 이론이 많아야 합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이 부질없이 많아서 어떻게 편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네 나무 네 뿌리를 믿어라 이겁니다. 네 나무는 네 뿌리를 믿어야 그네 뿌리에서 에너지를 흡수해서 올려 보냄으로써 푸르르게 살 수 있고, 꽃이 필 수 있고, 열매가 맺을 수 있고, 그 열매는 무르익을 수가 있고, 무르익어서 만 가지 맛을 내게 할 수 있고, 그래서 만 가지로, 천차만별로 살아가는 중생들에게 다 공급할 수가 있다 이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그냥, 내 마음의 불바퀴에다가 그냥 모든 걸 맡겨 놓으라는 겁니다. 맡겨 놓고 '잘되게 하는 것도 너니까 못되게 하는 것도 너다. 그러니 네 심부름을 잘하게 하려면 잘되게 해야 되지 않아?' 하고 거기가 맡겨 놓으란 말입니다. 맡겨 놓는 버릇을 해 보시라고요.

출가자와 재가자의 공부에 구별 있는지요

문) 출가자와 재가자가 공부하는 데 구별이 있는지요.

답) 구별은 없는데 사람의 차원이 구별이 돼 있기 때문에 구별이 있는 거지, 구별은 없어요. 풀 한 포기든 생명이 있으니까 마음을 전달하고 그러는 데요. 뭐,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을 바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게 차이가 나는 거뿐입니다.

또 스님이 돼야 많이 하고 스님이 안 되면 많이 하지 못한다 이런 게 아니라 공부하는 똑 같이 하는데 아무래도 살림하는 사람은 자기의 가족이 있잖아요, 가족이. 그런데 이 스님네들은 가족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스님네들은 아무래도 이 마음이 그냥 걸림 없이 그냥 저저 넘어 나가게 나가는 그 가슴이 벌어져 있던 말이에요. 그리고 이 의복도 이렇게 입고 있고 그러니까 모르는 중생들도 다 이렇게 오지요, 거죽으로도, 또 보이지 않는 중생들도 마음으로 이렇게 달려든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지는 울이, 우주 삼천대천세계를 건질 수 있다 하면은, 그 속가에서 공부한 분들은 그저 속가에서 그 모든 걸 끌고, 그렇게 잘 이끌어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무의 세계 유의 세계를 겸해서 스님네들은 다 천차만별로 돼 있는 거를 그렇게 천차만별로 자기가 나누면서 하기 위해서 중노릇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아무래도 가정이 있으니까 거기에 여념하다 보면 넓게 바깥으로 튀어 나갈 수가 없거든요. 지구 바깥으로 튀어 나갈 수도 없고 또 우주 바깥으로도 튀어 나갈 수가 없거든. 그냥 물속으로 도 숨어 들어갈 수가 없고 오직 그 생각 자체가 바로 거기에 어깨에 짊어진 게 있기 때문에 무거워서 그렇단 얘깁니다. 안 그럴까요?

죠? 그런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앞뒤가 없는 그 가운데서 한 발 한 발 떼어 놓고 가는 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즉 말하자면 가는 능이 가는 능한테 거기가 일임하러 이겁니다. 그러면 상대방에 굉장 거기에 연락이 되죠. 어느 학생이 중국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호주에 가서 공부를 하고 중국으로 건너갔는데, 영 말을 잘 모르니까 공부가 안 되죠. 그래서 주인공에다 맡기고 '주인공이 해! 주인공이 할 수밖에 없잖아!' 하나만 몇 개월 되지도 않아서 학교에 그냥 들어가서 말을 배웠다는 얘깁니다. 그건 왜 그러냐. 내 마음과 내 마음 안의 '참나'의 마음은 수없는 경년을 걸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말이든지 듣지 않는 것이 없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돌 아니게끔 자꾸 지혜를 불어 넣어 주니까 배를 수밖에요.

내가 이렇게 말을 해도 여러분들은 그것을 감지를 못할 거예요. 보지도 못했고 해 보지도 못했고 한 거 알지도 못하니까. 그렇다고 무시 하진 말아요, 사실이 그러니까. 귀머거리한테

줄게.' 하고 모든 거를 다 좀 여유 있는 마음으로, 진짜로 믿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

호흡법을 공부하고 있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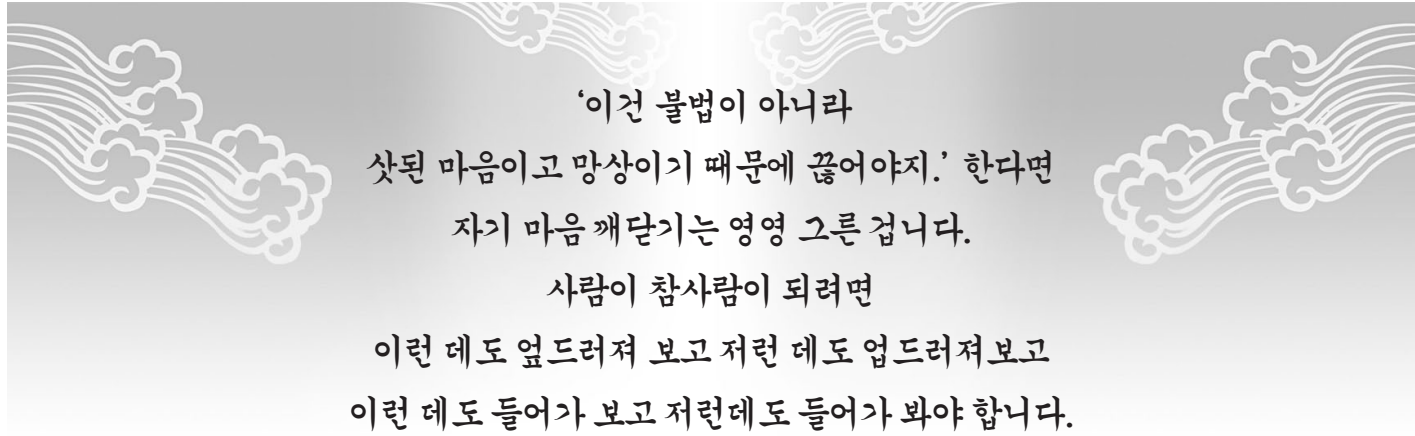
문) 저는 마음과 기를 함께 닦아야 한다고 해서 조식수련법, 즉 호흡법을 공부하고 있는데, 좌선하고 있으면 아무 생각이 안 나고 습만 느껴지고 배 속에 이상한 변화가 느껴지는데 어떻게 공부해 나가야 할지 가르침 바랍니다.

답) 아니, 자동적으로 기가 있는 것을 사용하는 건데, 내 마음으로서 내 몸통이 속의 자생 중생들에게 신호를 보내면 자생 중생들이 모자라는 건 채우고 작용을 하는데, 빛 때문에 호흡 들어가고 나가는 데 거기가 기준을 둬니까. 아니, 호흡을 내쉬고 들어갈 수 없으면 죽는 거고, 들어주고 내실 수 없으면 죽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 죽는 법을 왜 합니까. 내쉬고 들

게 되는 거죠. 잘못해도 같이 잘못하는 거고 잘못해도 같이 잘하는 거고.

그런데 살다 보면 몸이 떨어져요. 우리가 헛웃 벗어버리듯 떨어집니다. 떨어지면 말도 떨어지고 배 속에 있는 모든 게 같이 떨어져 버리죠. 이거 보세요, 내 마음은 길잡이요, 선장이요, 선장이 다스리는 채찍과 같은 겁니다. 마음이, 그런데 배 속에 있는 생명들에게 오히려 선장이 밀리면 배를 어떻게 끌고 갑니까. 지금 몸이 배라고 한다면 몸속에 모든 자생 중생들이 들어 있는데 선장이 배를 끌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선장이 오히려 그 배 안에 탄 중생들한테 말려 들어간다면 어떻게 선장이 채찍질을 하면서 배를 끌고 가겠느냐 이 소립니다.

'변화가 있으면 변화가 없게 하는 것도 너니깐 변화 없이 작용을 잘해서 모자란 거 잘 채워서 건강하게 해서 끌고 가.' 이렇게 하면 되지, 뭐가 그렇게 하나하나 건건수가 많습니까. 지금 살기도 바쁜 세상에 어떻게 종교마저 그렇



“성우상사 거위털 제품의 특징은 가볍고 따뜻하며 땀이 차지 않습니다. (거위털 이불, 패드, 베개) 강력한 흡습, 발산, 공기층 형성으로 체온을 33° ± 1 유지하고 속면을 도우며 우리의 몸의 면역력을 증강시킵니다.”

모든 제품 거위털 100% 간편한 세탁(물빨래)/다양한 사이즈(M,L,XL,77,88,99) www.namsungwoo.co.kr

 <p>누비 적삼 55만, 50만, 45만원 누비 바지 55만, 50만원</p>	 <p>속조끼 230,000원(녹차) 148,000원(일반) 속바지 380,000원</p>	 <p>후드점퍼 410,000원 480,000원</p>	 <p>조끼 180,000원</p>	 <p>목대 50,000원</p>	 <p>목워머 16,000원</p>
 <p>다리토시 45,000원</p>	 <p>수면베선 80,000원</p>	 <p><소매 착용시> <소매 탈착시> 거위털 점퍼 (지퍼 타입) 320,000원</p>	 <p>저고리 500,000원 450,000원 350,000원</p>	 <p>목도리 28,000 / 50,000원</p>	

방수, 흡습, 발산 제품으로 땀이 차지 않습니다. 물수건으로 닦아 사용하셔도 됩니다.



팔토시 20,000원(방수)
공양실 앞치마 32,000원



바람막이 상의 180,000원
바람막이 하의 110,000원

공양 앞치마 20,000원

휴대용이불 가격, 색상, 사이즈 다양

성우상사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5가 20번지 B1 22호
대표 02)2679-2848
010-3707-7016